



메디레포의 짬질팩 '메디레포아이싱'

“프로야구 선수들도 쓰는 특수 냉·온 짬질팩”

베덕귀 메디레포 사장은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를 하고 난 뒤 어깨와 팔꿈치 등이 아파서 고민이었다. 어느 날 한 프로 선수가 얼음을 램으로 싸서 근육에 대는 것을 보고 집에서 따라 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냉찜질에 빠진 배 사장은 스포츠용품 가게를 찾았으나 관련 제품은 10만원이 넘는 외국산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이었다.

그렇다고 얼음 주머니를 팔에 돌돌 감자니 지나치게 차갑고 번거로웠다. 내친 김에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냉찜질 제품’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1년간의 개발을 거쳐 지난해 7월 ‘메디레포아이싱’을 내놓았다. 메디레포는 ‘메디컬’과 ‘레포츠’를 합쳐 만든 사명이고, 아이싱은 냉찜질을 뜻한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으뜸중소기업제품으로 선정됐다.

◆냉각젤 굳지 않는 짬질팩
제품의 원리는 간단하다. 냉각젤이 들어 있는 아이싱팩(얼음 주머니)을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커버에 싼 뒤 해당 부위에 10~20분간 착용하면 된다.

냉각젤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특수 배합해서 제조했다. 신축성이 좋은 나일론 라이렉스 원단을 써서 팔꿈치 등 신체의 굴곡진 부분에도 밀착할 수 있다. 동상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냉기가 유지되는 기술력으로 특허 출원도 했다. 우레탄 소재를 써 피부에 직접 닿아도 까슬까슬하지 않도록 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가열하면 핫팩이 돼 온찜질도 할 수 있다. 제품은 부위에 따라 나뉜다. 어깨용, 팔꿈치·무릎·발목용, 허리·옆구리·허벅지·종아리용 등 세 가지가 있다. 배 사장은 “제품을 착용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착용감이 좋고 동상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며 “운동 직후 생긴 근육통과 타박상, 수술 뒤 치료에는 냉찜질이, 만성적인 통증엔 온찜질이 좋다”고 설명했다.

◆수입 제품의 절반 가격
메디레포는 배 사장이 냉찜질 제품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설립한 신생업체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했으며, 직화법비를 생산해 흡소평 등에 공급했다.

배 사장은 “참신하고 좋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싶

냉기 유지 기술력 특허출원

구부러진 팔꿈치 등 밀착 가능

“미국·일본에도 수출할 것”

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발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많은 신발 공장을 찾아가며 원단·바느질·가봉기술 등을 배웠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판매를 시작하면 매출 3억원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품 가격은 5만원 선이다. 앞으로 저가의 커버 원단을 사용한 3만원대 보급형 제품을 내놓아 코오롱 W스토어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며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이싱 전문회사로 육성
최근 아웃도어 인구가 늘면서 제품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롯데디자인즈 넥센하어로드 등 프로야구 구단과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학교 보건실 등



베덕귀 메디레포 사장이 부산 문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메디레포아이싱' 제품을 착용한 채 설명하고 있다.

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을 비롯한 병원들과 오십견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을 다루는 전문한의원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엔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구매하는 물량이 늘

고 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수출도 준비하고 있다. 배 사장은 메디레포를 ‘아이싱 전문회사’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냉찜질 기계를 비롯해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월의 으뜸중기제품=△세비앙의 수납일체형 샤워기 ‘가로본능 UP’ (031)765-3110 △라이프온레프의 스포츠용품까지 분석해 주는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아’ 070-4603-7474 △메디레포의 ‘메디레포아이싱’ 070-4193-8525 △유니디자인의 보스(Beaus) 타일 (032)612-9519

줄기세포 추출기기 건보 적용

(건강보험)

올해부터 고밀도추출기 대상 통증·손상 줄인 치료법 관심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은 신의료기 기들이 올 상반기부터 신의료기술평가 받기 않고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그동안 신의료기기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신기술평가(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90일) 등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개발 업체로서는 시장 진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활성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소비자는 첨단 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일단 줄기세포 관련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줄기세포 추출·농축 의료기기업체인 미라썬의 ‘스마트프렘2-비맥2(사진)’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정상급 줄기세포 분리기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 발목이 잡혀 빛을 보지 못했던 대표적 사례다.

스마트프렘2는 환자의 골수(영양이 뼈)에서 줄기세포를 고밀도로 추출하는 기기다. 골수 천자액(의료기기로 신체를 찔러 얻어지는 액체) 60cc로부터 10cc를 분리·농축하는 과정에서 7억2000만개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배양 과정 없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

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세계 32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2013년 12월 연골 재생, 골 유합(뼈를 붙이는 것), 무릎관절염 개선으로 적응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월 중증하지허혈(말초동맥, 당뇨병성 족부궤양), 급성심근경색(관상동맥성형술, 관상동맥우회술)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적응증을 추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에서 15~50세로 시술연령 제한, 연골 손상범위 2~10cm 내에서만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히 더 많은 연령층의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확산시킬 수 없었다.

신원순 미라썬 대표는 “시판용 임상시험에서 적응증을 받았는데도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때문에 의사들이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신의료기기를 사용해 왔다”며 “의료기기를 활용한 치료 효과는 의사가 기기를 다루는 테크닉과 시술 노하우에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 의사 재량에 따라 신의료기기를 적용하면서 보다 치료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스마트프렘2로 1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한 김석준 KS병원 원장은 “스마트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과 뼈뿐만 아니라 인대·힘줄 손상에도 재생 능력을 발휘한다”며 “앞으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으로 적응증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rainbow@hankyung.com



“불 잘붙는 단열재 규제해야... 대형화재 원인 제공”

(스티로폼·우레탄 등)

관련업계, 폐제품 인증 박차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재료인 스티로폼과 우레탄 소재로 만든 단열재는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단열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단열 성능이 좋은 스티로폼과 우레탄 소재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소재로 만든 단열재는 가볍고 규격에 맞춰 자르기도 쉽다.

하지만 스티로폼 등은 화재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70~80%가 가연성 자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이다.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건물 화재를 비롯해 지난해 5월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2013년 구로디지털 복합시설 공사장 화재 등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는 “불이 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 부분으로 올라가므로 연기의 피해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폐제품 등 불연성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는 지난해 말 문을 연 경기 광명시 매장에 불이 잘 붙지 않는 폐제품 단열재를 사용했다. 가구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단

열재는 가연성이 낮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청계천 두산위브, 천안 불당신도시 신영지웰푸르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폐제품 단열재를 썼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폐제품 소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준불연(불연성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인증을 획득해 화재에 강한 점도 입증돼 안전한 소재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신의료기 개발한 간호사들 서울아산병원은 김이영(가운데)-조정원(왼쪽) 간호사가 위장장에 환자들의 위액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배액주머니를 개발,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배액주머니는 제약사에 기술 이전이 이뤄져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글로벌미드 채널 AXN 신년 이벤트

행운의 福 주머니를 찾아라!

TV 시청 중 등장하는 복주머니를 찍어 #1050(유료100원)으로 문자 전송하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15.1.2(금)~1.31(토), 오후 2시~밤 12시

당첨자 발표
2015. 2. 3(화), AXN 페이스북 및 개별통보(당첨자에 한함)

경 품

- 1등, 소니 액션캠(4명)
- 2등, 에어 프라이어(4명)
- 3등, 뮤지컬 라카지 티켓(20명/1인2매)
- 4등, 탐안탐스 텀블러(5명)
- 5등, 탐안탐스 예코 앤들드링킹자(20명)

*이벤트 신청 및 당첨 발표는 제세공공인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이벤트 신청은 인기(예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자첨득은 2월 중 당의 배정되어 발송 및 교환 불가합니다. 이벤트 문의처: marketing@axnkr.com

추첨 후 소니 액션캠 등 푸짐한

미드의 판을 뒤집다!
AXN
www.axntv.co.kr
f /AXNkorea

* Skylife 73번, Btv 44번, 지역별 케이블 TV 채널번호는 AXN 홈페이지(www.axntv.co.kr) 참조